

##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

김서준\*

### 1. 서론

바울서신에서 명사 δικαιοσύνη, δικαίωμα, δικαίωσις, 형용사 δίκαιος, 그리고 동사 δικαιοῶ와 같은 다양한 δικαι-어군의 용어들은 여러 단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용 맥락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우선 δικαι-용어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 용례의 대표적인 예는 로마서 3:5와 3:25-26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sup> 그리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통한 의(롬 1:17; 3:21-22; 4:11, 13 등), 새로운 삶의 내용(롬 6:13, 18-20 등), 구체적인 의로운 행위(고후 9:9-10; 빌 1:11)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δικαι-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이르는 의에 대해서 말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로마서 5:16-21 역시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계명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aromaletter@live.co.kr](mailto:aromaletter@live.co.kr).

1) 롬 2:5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δικαιοκρισί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바울의 δικαιοσύνης 용례에 대해서는 Seo-Jun Kim, "Righteous God Who Justifi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nstration of God's Righteous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Sinners in Rom 3:24-26", *The Expository Times* 134:8 (2023), 346-358을 참조.

이르는 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 이 단락은 로마서 3:21-30; 4:1-13; 갈라디아서 2:15-21; 3:6-14와 같은 본문에 비하면 이신칭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아 온 본문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는 이 단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소위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으로 잘 알려진 이 단락에서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를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신자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내용을 *δικαι*-용어들로 표현한다. 이 단락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울이 로마서 1:17부터 자주 사용하는 *δικαιοσύνη* 외에도 *δικαίωμα*, *δικαίωσις*, *δίκαιος*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5:16-21의 *δικαι*-용어들의 대략의 의미와 강조점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라는 큰 담화 구조 안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δικαι*-용어들 사이의 차이와 강조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적합한 번역어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로마서 5:12-21에 사용된 *δικαίωμα*(16절, 18절), *δικαιοσύνη*(17절, 21절), *δικαίωσις*(18절), *δίκαιος*(19절)의 의미와 번역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어원과 조어법을 중심으로 각 *δικαι*-용어들의 핵심 의미를 분석하고, 각 용어들 사이의 차이와 강조점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것이며, 각 *δικαι*-용어들의 원래 의미에 더 적합한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 2.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 현황

### 2.1. *δικαι*-용어들의 사용 문맥

*δικαι*-용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로마서 5:16-21은 아담, 그리스도 비교 단락인 로마서 5:12-21에 위치해 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아담 이래로 계속되어 오던 죄와 죽음의 지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고, 인류에게 의와 생명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지를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 준다. 바울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역설한다.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단락에서 전개되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는 이 두 인물 사이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아담이 행한 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며,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sup>2)</sup>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τύπος)”이라는 바울의 독특한 시각에 근거한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는 같은 표현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 각각의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가져온 영향을 서로 비교한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행한 일과 그 영향의 비교는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비교는 정확한 대칭이 아니라 표현과 구조 사이에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sup>3)</sup>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전체적인 강조점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으며,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대칭적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절에 사용된 핵심 용어들은 대부분 반복되어 나타나며, 다양한 변화 속에서 생략된 내용은 주된 담화 구조, 즉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들이 가져온 결과를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δικαι-용어들의 사용 맥락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로마서 5:16-21의 주된 담화 구조를 중심으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칭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담	그리스도
행위	범죄(παράπτωμα) 불순종(παρακοή)	의로운 행위(δικαίωμα) 순종(ὑπακοή)
결과	심판(κρίμα) 정죄(κατάκριμα) 죽음(θάνατος)	은사(χάρισμα) 의(δικαίωμα, δικαιοσύνη, δικαίωσις, δίκαιος) 생명(ζωή)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δικαι-용어들은 주로 정죄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2)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7), 324 이하; K. Haacker,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146 이하; E. Lohse,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80 이하 등.

3) 롬 5:16 이하의 비대칭적 구조에 대해서는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4), 349 이하; 권연경, “DIKAIWMA – “의롭다 하심”인가 “의로운 행위”인가?”, 『신약논단』 18:3 (2011), 790 이하를 참조.

나타낸다. 하지만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의 경우는 다르다. 여기서 δικαίωμα는 신자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그의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용례를 구원의 내용을 가리키는 다른 δικαι-용어들과 따로 동떨어져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의 경우 그리스도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신자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서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δικαι-용어들의 번역 현황

로마서 5:16-21에 사용된 δικαι-용어들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들을 주요 번역본들인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6하반절 τὸ δὲ χάρισμα ἐκ πολλῶν παραπτώματων εἰς δικαίωμα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b>의롭다 하심</b> 에 이름이 아니라	많은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와서 <b>무죄 선언</b> 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b>무죄 판결</b> 로 이어졌습니다.
17하반절 πολλῶ μᾶλλον οἱ τὴν περισσεῖαν τῆς χάριτος καὶ τῆς δωρεᾶς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λαμβάνοντες ἐν ζωῇ βασιλεύουσιν διὰ τοῦ ἐνό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더욱 은혜와 <b>의의 선물</b> 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 로다	넘치는 은혜와 <b>의의 선물</b> 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b>의로움</b> 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원문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8하반절 οὕτως καὶ δι' ἑνὸς δικαι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δικαίωσιν ζωῆς	한 <b>의로운 행</b> 위로 말미암 아 많은 사람 이 <b>의롭다 하</b> 심을 받아 생 명에 이르렀 느니라	이제는 한 사람 의 <b>의로운 행위</b> 때문에 모든 사 람이 <b>의롭다</b> <b>인정</b> 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 었습니다.	하나의 <b>의로운</b> <b>행동</b> 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 으로 이끄는 <b>무</b> <b>죄 선언</b> 이 내려 졌습니다.
19하반절 καὶ διὰ τῆς ὑπακοῆς τοῦ ἐνὸς <b>δίκαιοι</b>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 οἱ πολλοί	한 사람이 순 종 하 심 으 로 많은 사람이 <b>의인</b> 이 되리 라	이제는 한 사람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b>의인</b> 으 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한 분이 순종하 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b>의롭다</b> <b>고 판결</b> 받은 사 람이 될 것입니 다.
21하반절 καὶ ἡ χάρις βασιλεύσει διὰ δικαιοσύνης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은혜도 또한 <b>의</b> 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b>의</b> 를 통 하여 사람을 지 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 명에 이르게 하 려는 것입니다.	은혜도 <b>의</b> 를 통 해서 다스리려 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우선 로마서 5:17과 5:21에 두 번 사용된 δικαιοσύνη의 번역에 대해서는 세 번역본 모두 “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에 대해서도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으로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본문들, 곧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와 δικαίωσις에 대한 번역어와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ς에 대한 번역어로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δικαίωμα의 번역이다. 위의 다양한 번역본들은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는 “의롭다 함”이나 “무죄 선언”, “무죄 판결”로 번역하고,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과 같이 서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만 보더라도 δικαίωμα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더 나아가 통용되는 번역어들이 δικαίωμα의 의미를 제대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와 더불어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와 방금 언급한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가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서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한 질문도 생긴다. 과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에 대한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개역개정』은 ‘의인이 되는 것’으로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를 해석했지만, 다른 두 번역은 ‘의롭다는 판결’로 이 표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로마서 5:16-21에 사용된 δικαι-의 미와 번역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순서는 편의상 본문에 사용된 단어의 순서를 따를 것이다. 각 단어의 의미와 번역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각 단어들의 어원과 조어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각 용례들의 맥락과 문장의 구조, 신학적 강조점을 함께 다루려고 한다.

### 3. δικαι-용어들의 의미와 번역 문제

#### 3.1. δικαίωμα

로마서 5:16에서 바울은 앞선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의 비교를 이어간다. 앞선 문장, 15절의 형식은 두 인물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정확히 대칭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서 5:16은 비교적 정확한 대칭을 보여 준다.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인 “심판(κρίμ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선물(δῶρημα)” 사이의 대조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야기된 “심판(κρίμα)”과 많은 사람의 범죄들로부터 야기된 “은사(χάρισμα)”를 서로 비교한다. 이처럼 이 단락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온 서로 상반되는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담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으로부터(ἐξ ενός)”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범죄들로부터(ἐκ

πολλῶν παραπτωμάτων)”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바울은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통해서 앞의 문장에서 사용한 πολλῶ μᾶλλον 형식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는 많은 범죄, 곧 인류의 죄의 역사에 대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한 사건이다. 이것은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역사를 능가한다.

심판과 은사의 대조 뒤에 이어지는 εἰς κατάκριμα와 εἰς δικαίωμα 문구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가져온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sup>4)</sup> κατάκριμα는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에서만 세 번, 로마서 5:16, 18; 8:1에 사용되며, 항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판결을 가리킨다.<sup>5)</sup> 일반 헬라, 로마 시대 문헌에서도 이 단어의 의미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죄인을 향한 정죄, 심판을 가리킨다.<sup>6)</sup> 하지만 κατάκριμα에 대응하는 표현인 δικαίωμα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5:16의 경우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본들은 “의롭다 하심”, “무죄 선언”, “무죄 판결”과 같이 법정에서의 긍정적인 판단, 곧 칭의의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같은 표현이 사용된 로마서 5:18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이라는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32의 δικαίωμα의 경우에는 “정하심”, “규정한 법도”, “규정”, 로마서 2:26에는 “규례”, “규정”, 그리고 로마서 8:4에는 “요구”, “요구하는 바”, “규정하는 일”과 같은 표현으로 번역된다.<sup>7)</sup> 이처럼 로마서만 놓고 보더라도 δικαίωμα에 대해 다양한 번역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사전들 역시 δικαίωμα를 다양한 의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요 사전들에 나타난 의미 범주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형벌, 처벌(Philo, *Leg.* 864), 2) 제도, 규범, 요구(Philo, *Det. Pot. Ins.* 68; Josephus, *Bell.* 7,110; 칠십인역 창 26:5; 출 15:25 이하; 신 4:1, 5, 8, 40 등; 눅 1:6; 롬 1:32; 2:26; 8,4), 3) 의롭다는 판결(Thucydides, 1,41; Isocrates, 6,25; Aristoteles, *Cael.*

4) δικαίωμα의 사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때로 본문에 나타나는 -μα로 끝나는 다른 단어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BAA, δικαίωμα; E. Käsemann, *An die Römer* (Tübingen: Mohr Siebeck, 1980), 146;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I* 324; J. D. G. Dunn,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281; T. Schreiner, *Romans* (Grand Rapids: Baker, 1998), 285. 하지만 바울은 롬 5:18에서 같은 표현 κατάκριμα의 반대어로 δικαιοσύνη를 사용한다.

5) BAA, κατάκριμα 참조.

6) LSJ, κατάκριμα 참조.

7) 순서에 따라 각각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어들이다. 롬 2:26의 경우에는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모두 “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79b 9; Josephus, *Ant.* 17,228; 17,130; 칠십인역 왕하 19:28; 롬 5:16), 4) 의로운 행위(Aristoteles, *Eth. Nic.* 1135a 9; 롬 5:18; 계 15:4; 19:8).<sup>8)</sup> 이러한 δικαίωμα에 대한 다양한 용례들과 의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δικαίωμα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 δικαιοώ의 의미와 그리스어 조어법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δικαίωμα는 동사 δικαιοώ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형용사 δίκαιος에서 파생된 추상명사(nomen abstractum)인 δικαιοσύνη와는 달리 동사적 명사(nomen verbi)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의미도 형용사 δίκαιος가 아니라 동사 δικαιοώ와 관련된다. *Eth. Nic.* 1135a 9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의로운 행위를 뜻할 때는 일반적으로 δικαιοπράγημα를 사용하며, 불의한 것을 다시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τὸ ἐπανόρθωμα τοῦ ἀδικήματος)는 δικαίωμα라고 부른다.

이 설명에 따르면 δικαίωμα는 δικαιοπράγημα와는 다르게 단순히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δικαίωμα에 대한 설명은 동사 δικαιοώ의 의미와 그대로 연결된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통해서 흔히 “의롭다고 하다”의 의미로 알고 있는 동사 δικαιοώ는 사실은 이 한 가지 용어로 그 의미가 다 설명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어 사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어떤 것을 옳다, 의롭다고 여기다(부정사가 따라옴: Sophocles, *Ph.* 781; Herodotus, 1,89; 1,133; 2,172 등; Thucydides, 2,41; 5,26 등), 2)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여기다(사람 목적어가 따라옴: 칠십인역 출 23:7; 눅 16:15; 롬 3:26, 30; 갈 2:16 이하 등),<sup>9)</sup> 3) 어떤

8) *ThWNT*, δικαίωμα; *LSJ*, δικαίωμα; *BAA*, δικαίωμα; *BDAG*, δικαίωμα 참조.

9) 위의 예시에 칠십인역 왕상 8:32, 그리고 바울의 용례에 영향을 미친 사 50:8-9; 53:11도 추가할 수 있다. 칠십인역에서 δικαιοώ의 용례는 사실 사전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위의 예시들처럼 칭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본문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시 81:3과 사 1:17의 경우 δικαιοώ의 목적어는 ταπεινός, πένης, χήρα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인데, 대부분 “의롭게 대하다” 정도로 번역을 한다. W. Kraus and M. Karrer, eds., *Septuaginta Deutsc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J. W. Olley, “Righteousness” in the *Septuagint of Isaiah: a Contextual Study*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45 이하 참조.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δικαιοώ의 중심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경우 δικαιοώ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의를 이루다”, 그들을 “의로운 상태에 두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심판하다, 형벌하다(사람 목적어가 따라옴: Herodotus, 1,100; Thucydides, 3,40; Philo, Leg. 934b; Cassius Dio, 57,47).<sup>10)</sup> 여기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 중에서도 단연 “심판하다”, “형벌하다”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는 바울서신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는 이 동사의 용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δικαιώω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따라올 때, δικαιώω가 “심판하다”, “형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바울의 복음을 접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통한 칭의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sup>11)</sup>

사전들이 설명하는 δικαιώω의 다양한 용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ωω로 끝나는 동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과 조어법을 연구한 데브룬너(A. Debrunner)에 따르면 -ωω 동사들은 어떤 상태(지위)에 두거나 그러한 상태(지위)를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sup>12)</sup> δικαιώω는 이런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상태에 두는 것, 그러한 상태를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이러한 -ωω 동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전들이 정리한 δικαιώω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경우들이 동사의 중심 의미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δικαιώω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맥락에 사용된다면, 이때 δικαιώω는 단지 그 사람을 형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10) *ThWNT*, δικαιώω; *LSJ*, δικαιώω; *BAA*, δικαιώω; *BDAG*, δικαιώω 참조. 사전들에 나오는 의미범주의 분류는 다소 부정확한 것도 있다. 또한 사전들은 자세한 사용 맥락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의미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고대 헬라, 로마 시대 문헌에서의 동사 δικαιώω의 의미에 대해서는 Seo-Jun Kim, *Gott ist es ja, der uns für gerecht erklärt: Eine Studie zu den verschiedenen Bedeutungen und Funktionen der δικαι-Termini im Römerbrie*, WMANT 16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3), 66-84를 참조.

11) 프로트로(J. B. Prothro)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J. B. Prothro, “The Strange Case of Δικαιώω in the Septuagint and Paul: The Oddity and Origins of Paul’s Talk of Justification”, *ZNW* 107.1 (2016), 51 참조. 프로트로는 바울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δικαιώω의 용례가 칠십인역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바울의 δικαιώω 사용방식이 구약성경의 용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예를 들어 법정적 맥락에서 하나님을 δικαιώω의 주어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 자세한 것은 김서준, “바울의 의에 대한 소망 - 종말론적 시대에서의 δικαι-용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 28:3 (2021), 652 이하 참조. 하지만 바울서신의 δικαιώω의 의미를 일반 헬라,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δικαιώω와 다르게 보는 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로마 시대의 독자들은 칠십인역, 더 나아가서 바울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δικαιώω의 용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12) A. Debrunner, *Griechische Wortbildungslehre*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917), 99 이하를 참조.

13) 예를 들어 δουλόω는 “노예로 만들다”, “노예로 삼다”, ἐλευθερόω는 “자유롭게 하다”를 의미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각각 노예라는 상태, 혹은 자유라는 상태에 두거나,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의 불의한 상태를 다시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사전들에 나오는 “심판하다”, “형벌하다”와 같은 표현은 δικαίω의 의미를 옮기는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δικαίω의 원래의 의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심판하다”, “형벌하다”보다는 “의로운 상태로 만듦”, “의로운 상태에 두다”와 같은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δικαίωμα에 대한 의미 설명과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 δικαίω의 특징을 참고하면 δικαίωμα의 다양한 용례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먼저 δικαίωμα가 자주 어떤 사람을 형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벌이 죄를 지은 사람의 불의를 바로 잡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제도, 규정을 가리키는 예들은 이러한 법의 내용들이 결국 의를 이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의로운 판결, 증거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행위를 지칭하는 예시의 경우, 곧 로마서 5:18이 포함되는 경우도 δικαίωμα의 중심 의미로 모두 소급될 수 있다. 사전들의 예시들은 모두 불의를 바로잡고, 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하지만 롬 5:18의 경우 “의로운 행위”라는 의미 이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

로마서 5:16의 용례 역시 불의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의 변화라는 δικαίωμα의 중심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번역본들은 본문의 δικαίωμα를 “의롭다 하심”이나 “무죄 선언”, “무죄 판결”과 같이 번역하는데, 이러한 번역어들은 δικαίωμα를 법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판결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κατάκριμα와 δικαίωμα의 대칭 관계를 고려해 볼 때, δικαίωμα를 하나님의 판결, 곧 칭의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sup>14)</sup> 또한 바울서신에서 동사 δικαίω가 법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실례들이 있기에 이러한 해석은 나름의 본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롬 8:33; 고전 4:4).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δικαίωμα의 의미는 단지 칭의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그보다 더 넓은 의미 범주를 가지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4) C. E. B. Cranfield, *Romans I*. (Edinburgh: T&T Clark, 1975), 287;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I*, 324; H. Schlier, *Der Römerbrief: Kommentar* (Freiburg: Herder, 1987), 171; D. Moo,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8), 338 참조.

15) 이러한 점은 δικαίω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δικαίω의 핵심 의미는 의인이라는 지위의 수여에 있으며, 바울은 이 표현으로 신자가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넘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의 변화를 함축한 표현이다(특히 롬 6:7; 6:18 이하 참조). 이러한 δικαίω로 표현되는 신자의 변화(많은 경우 수동태)는 고후 5:17의 새로운 피조물이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 역시 단순한 법정적 판결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인의 지위를 수여하는 것(곧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지위로의 변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능가하는 하나님(혹은 그리스도)의 은사의 내용이다. 이러한 본문의 논지는 로마서 5:17의 δικαιοσύνη, 5:18의 δικαίωσις, 5:19의 δίκαιοι καθίστημι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δικαίωμ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직접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칭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 단어의 다양한 용례들 때문이다(위에서 언급한 롬 1:32; 2:26; 8:4 참조). 가장 가까이는 명확히 그리스도의 행위, 곧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의 용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의 용례를 이 단어의 또 다른 낯선 사용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로마서 5:16의 용례와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sup>16)</sup>

### 3.2. δικαιοσύνη

로마서 5:17의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는 다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문장에서 서로 비교되는 대상은 죽음(θάνατος)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신자들(οἱ τὴν περισσείαν τῆς χάριτος καὶ τῆς δωρεᾶς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λαμβάνοντες)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선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강조점은 바로 아담을 통한 죽음(θάνατος)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ζωή) 사이의 대조에 있으며, 이것이 이 문장의 핵심 주제를 이룬다.<sup>17)</sup>

라는 선포와 다르지 않다.

16) δικαίωμ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다시 롬 5:16의 δικαίωμ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δικαίωμα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롬 5:18처럼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리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문에서 χάρισμα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도 볼 수 있게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커크(J. R. D. Kirk)와 주잇(R. Jewett)과 같은 학자들은 롬 5:16의 δικαίωμα를 롬 5:18의 용례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지어 해석한다(J. R. D. Kirk, "Reconsidering Dikaiōma in Romans 5:16", *JBL* 126:4 (2007), 790 이하; R. Jewett, *Romans: A Commentary* (Edinburgh: Fortress, 2007), 382 참조). 하지만 δικαίωμα의 대칭이 되는 κατάκριμα를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의 이해대로 δικαίωμα 역시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17) 롬 5:17에서 길로 드러난 주어는 죽음과 신자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강조점은 διὰ τοῦ ἑνός와 διὰ τοῦ ἑνό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사이의 대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여기서 14절에 이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른 죽음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 말한다. 곧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끝내셨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역사를 극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χαρίς, δικαιοσύνη*는 다시 한번 핵심 단어로 사용된다.

*δικαιοσύνη*는 *δίκαιος*에서 파생한 추상명사로 주로 “의”로 번역되며, 로마서 5:17의 경우에도 우리말 번역본들은 “의”라는 번역을 선호한다. 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 신자의 새로운 삶의 내용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sup>18)</sup> 그런데 때로는 이 단어가 단순한 하나님의 판결을 뜻하는 *δικαίω*와의 연속선상에서 칭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신자의 새로운 삶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울서신에서 *δικαιοσύνη*는 주로 하나님의 칭의를 표현하는 *δικαίω*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가 많지만(특히 롬 3:21-31; 4:1-25; 갈 2:15-3:29 참조),<sup>19)</sup>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강조점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롬 6장; 8:10; 롬 14:17; 고후 6:7, 14 참조). 로마서 5:17의 *δικαιοσύνη* 역시 이 둘 사이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로마서 5:1, 9의 *δικαιωθέντες*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까이서는 로마서 5:16, 18에 나타나는 *κατάκριμα*와의 대립 관계를 생각하여 단순히 칭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δικαίω*와 거기에서 파생한 *δικαίωμα*의 확장된 의미,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ι καθίστημι*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적 판결로서의 칭의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로마서 5:21의 *δικαιοσύν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18) 구체적인 본문들에 대해서는 위의 서론 참조.

19) 롬 1:17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역시 같은 하박국 본문이 인용되는 갈 3:11을 참조할 때, 명사 *δικαιοσύνη*와 동사 *δικαίω*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다. 이런 연관성은 롬 3:20-24에서도 볼 수 있다. Seo-Jun Kim, “Righteous God Who Justifi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nstration of God’s Righteous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Sinners in Rom 3:24-26”, 351 이하. 그리고 위에서 *δικαίω*의 의미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동사 역시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의롭다고 하다”, “무죄 판결을 내리다”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본문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δικαιοσύνη와 κατάκριμα의 대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조가 고린도후서 3:9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모세의 직분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의의 직분(διακονία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으로,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διακονία ὁ κατάκρισις)”으로 부른다. “의의 직분”은 의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영에 기반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대조에서 “의의 직분”은 바울이 맡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이 표현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모세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고린도후서 본문은 바울과 모세가 맡은 직분의 역할을 비교하는 데 있지만 로마서 본문의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가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인 강조점과 서로 연결된다.<sup>20)</sup>

δωρεὰ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사건<sup>21)</sup>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 선물은 χάρις와의 조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21절도 참조). 이런 의미에서 또한 바울이 15절과 16절에서 이러한 선물을 χάρισμα라고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의 이러한 사고는 이미 로마서 3:24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얻은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인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맥락상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지위에 합당한 모습을 행위로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런 배경에서 신자들의 의는 일하는 자가 받는 삯(μισθός)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누리는 은혜(χάρις)인 것이다(롬 4:4).

δωρεά라는 표현과 더불어 본문에 나타난 δικαιοσύνη와 ζωῆ의 결합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의와 생명의 결합은 바울서신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가까이는 로마서 5:18, 21에도 나타난다.<sup>22)</sup> 로마서 5:21과의 관련성을

20) 로마서 본문과 고린도후서 본문 사이의 연관성은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도 드러난다. 로마서 본문에서 곁으로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대척점은 아담의 범죄이다. 하지만 본문의 심층구조에서 인류의 구원과 관련하여 서로 비교되고 있는 양극은 그리스도 사건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롬 5:13, 20 참조).

21) 본문에는 아담의 범죄에 대응되는 그리스도 사건,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자들의 의가 그리스도 사건에 근거해 있음은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

22) 롬 6:23; 8:10도 참조. 롬 4:25에는 이 표현이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ζωή)은 신자들에게 종말에 주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롬 5:9-10도 참조). 이러한 신자의 영원한 생명에의 참여는 고린도전서 15:20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로마서 5:17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곧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비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살전 4:13-18; 5:9-10 참조).

δικαιοσύνη가 다시 언급되는 로마서 5:21에서도 로마서 5:17처럼 죽음과 생명 사이의 대조가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조금의 변화를 준다. 왕적 통치의 주체는 사망과 신자들이 아니라 죄(ἀμαρτία)와 은혜(χάρις)로 바뀐다. 이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율법이 들어온 후에도 막지 못한 죄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위한 죽음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통치는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의(δικαιοσύνη)를 가능하게 하며(롬 8:3-4; 갈 2:21; 3:21 참조), 결국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ζωή αἰωνία)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여기서 δικαιοσύνη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칭의, 곧 신자들을 향한 판단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신자의 새로운 삶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판단은 쉽지 않다. 다만 본문의 ἀμαρτία와 δικαιοσύνη의 대칭적 구조와 로마서 5:16-19에 언급되는 다른 신자의 의로운 지위에 대한 언급들, 바울서신의 다른 본문에 사용된 δικαιοσύνη의 의미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δικαιοσύνη를 단순히 법정적 판결로 해석하는 것은 협소한 이해처럼 보인다.<sup>23)</sup> δικαιοσύνη의 의미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용어임은 분명하다.

### 3.3. δικαίωσις

앞의 문장들에서 때로 비대칭적인 표현과 구조로 묘사되던 아담과 그리

다.

23) 권연경 역서 롬 5:21의 δικαιοσύνη를 통상적인 “칭의”라는 의미가 아닌 신자의 삶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그는 롬 5:21에서 언급되는 은혜의 다스림과 롬 6:14에 나오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권연경, “DIKAIWMA”, 806 이하.

스도의 비교는 로마서 5:18에서는 매우 분명한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 준다. 이 본문은 또한 한 사람의 한 일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보편적 영향력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Ἄρα οὖν ὡς δι'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κατάκριμα,

οὕτως καὶ δι' ἑνὸς δικαίω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δικαίωσιν ζωῆς·

바울은 우선 아담의 행위를 15-17절에 이미 사용된 용어인 παράπτωμα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δικαίωμα로 표현한다. 이러한 대칭적인 구조에서 이 본문의 δικαίωμα가 16절의 경우와는 다르게 신자에게 이루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한 행위, 곧 그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δικαίωμα는 동사 δικαίω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 어떤 사람을 의로운 상태로 옮기는 것, 혹은 어떤 것,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지위를 수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로마서 5:18에서 바울이 신자가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용어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의인의 지위를 수여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δικαίωμα의 어원과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현재 통용되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이라는 번역보다는 “의로운 지위를 수여하는 행위”, 줄여서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이 δικαίωμα의 번역어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δικαίωσις는 δικαίωμα처럼 δικαίω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이 단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전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형벌, 처벌(Thucydides, 8.66.2; Plutarch, *De Artax* 14.1; *De Sera* 25; Dio Chrysostom 40.43.3; Josephus, *Ant.* 18.14; 18.315), 2) 변호, 정당화(Harpocration, *Lys.* 9.8; Plutarch, *De Virt. Moral.* 9; Dio Chrysostom, 41.54.3), 3) 규정, 규칙(Thucydides, 1.141.1; 3.82.4; Dionysius of Halicarnassos, *Ant. Rom.* 1.87.1; 7.16.2; Plutarch, *Demetr.* 18), 4) 의롭다는 인정(PsSal 3:3; 롬 5:18).<sup>24)</sup> 이렇게 사전들이 분류해 놓은 δικαίωσις의 다양한 의미 범주도 위에서 이미 다른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 δικαίω의 의미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 δικαίωσις가

24) *ThWNT*, δικαίωσις; *LSJ*, δικαίωσις; *BAA*, δικαίωσις; *BDAG*, δικαίωσις 참조.

자주 어떤 사람을 형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 단어가 불의를 바로잡고 다시 의를 이루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변호하고, 어떤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에 *δικαίωσις*가 사용되는 것은 *δικαίωσις*가 어떤 사람을 옳다고 하며, 어떤 사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δικαίωσις*가 자주 어떤 규정, 규칙을 가리킨다고 해석되는 이유는 규정, 규칙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의 용례 역시 이러한 *δικαίωσις*의 기본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행위, 곧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구원을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지위의 변화로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번역본들은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의 경우처럼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 역시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인정”, “무죄 선언”과 같은 표현으로 번역한다. 곧 이러한 번역본들은 *δικαίωσις*를 법정적 판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δικαίωμα*의 번역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δικαίωσις* 역시 단순히 칭의로 이해하기에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자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18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혹은 의인의 지위를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δικαίωσις*와 *δικαίωμα*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단지 같은 표현을 피하고자 *δικαίωμα*대신 *δικαίωσις*를 사용한 것일까? 용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새로운 형태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내는 것은 주석의 한계를 넘어선다. 단지 여기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는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우리말 번역본들은 *δικαίωμα*나 *δικαίωσις*를 모두 “의롭다 하심”, “무죄 선언”,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 문법의 설명을 따라 *δικαίωμα*는 상태 명사(*nomen rei actae*)로서 의롭다고 한 행위의 결과, 의롭게 된 상태를 나타내며, *δικαίωσις*는 행위 명사(*nomen actionis*)로서 의롭다고 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25)</sup>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해는 우선 위에서 다루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의 용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이 경우 *δικαίωμα*는 명확히 그리스도의 행위, 곧 그의 능동적 행위로서의 그의 죽음과 연결되

25) 예를 들어 *ThWNT*, *δικαίωμα*;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I*, 353.



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Eth. Nic.* 1135a 9에 나오는 δικαίωμ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δικαίωμα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δικαίωσις의 경우는 이 단어의 용례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로마서 5:18의 문맥에서는 δικαίωμα의 대칭어로서 의롭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4. δίκαιος

로마서 5:19 역시 로마서 5:18의 문장처럼 아담이 행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사이, 그리고 각각의 결과에 대한 비교가 정확한 대칭을 이루면서 설명된다. 바울은 아담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던 παράπτωμα(15, 16, 17, 18절) 대신에 παρακοή로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χάρις(15절)나 δικαίωμα(18절) 대신에 ὑπακοή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ἀμαρτωλοὶ κατεστάθησαν)과 반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을 이야기한다.

아담의 행위를 나타내는 παρακοή는 창세기 2:17의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하며, 아담의 범죄를 이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서 ὑπακο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의 사건임을 강조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2:8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행위로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그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셨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섬김의 행위로 말하는 것과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이사야 53장의 영향을 반영한다.<sup>26)</sup>

26) 칠십인역 사 53:11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많은 사람을 섬긴 행위로 표현한다: δικαίῳσαι δίκαιον εἰς δουλεύοντα πολλοῖς, καὶ τὰς ἁμαρτίας αὐτῶν αὐτὸς ἄνοισει. 사 53장의 반향은 롬 5:19 외에도 이 단락의 전반에 걸쳐서 두드러진다. 사 53장에서 반복되는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의’ 용어로 말하는 부분은 롬 5:16-21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의롭게 되는 대상은 분명히 죄인들로 묘사되는 “우리”이다. 넓은 맥락에서는 롬 5:1-11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의”(1절, 9절), “평화”(1절), “화해”(10-11절)로 말하는 부분도 사 53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롬 5:16-19의 사 53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E. Käsemann, *An die Römer*,

여기서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ς*의 사용은 주목할 만하다. 이 *δίκαιος*의 용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δίκαιος*라는 칭호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이다.<sup>27)</sup> 로마서 2:13에서도 바울은 “의인”에 대해서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 전통의 일반적인 신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례의 목적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를 구원의 길로 주장하려는 데 있지 않다. 바울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와 구원의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율법을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한다. 로마서 3:10, 19-20에서 바울이 강조하듯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밖에는 없는 것이다.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라는 수동태 표현은 신자가 얻은 의인이라는 지위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다.<sup>28)</sup> *καθίστημι*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나 지위로의 이동, 변화를 의미하는데,<sup>29)</sup> 본문에서 이 단어는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지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미래형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는 종말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칭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sup>30)</sup> 바울은 로마서 3:24; 5:1, 9; 고전 1:30; 6:11과 같은 여러 본문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의인으로의 지위의 변화를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하며, 앞에서 살펴본 다른 *δίκαι-*용어들 역시 미래의

145; C. Breytenbach, *Eine Studie zur paulinischen Soteri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210; J. Fitzmyer, *Romans*, The Anchor Bible 33 (New York: NY Doubleday, 1993), 421; M. Bird, *The Saving Righteousness of God: Studies on Paul*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6), 80 참조.

27)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획득한 의는 주로 동사 *δικαίω*나 *δικαιοσύνη*와 같은 명사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신자들이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가 되었다고 말하는 고후 5:21은 명사 *δικαιοσύνη*가 사용되었지만 롬 5:18에 가장 가까운 바울의 진술이다. 여기서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봉습, “고린도전서 1:30의 해석에 대한 소고 - 구문 이해 및 바울서신의 관련구절 분석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4 (2019), 1081-1119, 1110 이하를 참조.

28) 어떤 학자들은 수동태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를 신적수동태로 이해한다. 하지만 앞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을 표현할 때에도 수동태 *κατεστάθησαν*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를 반드시 신적 수동태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의인으로의 변화가 스스로의 노력과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9) BAA, *καθίστημι*; LSI, *καθίστημι* 참조.

30)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가 종말론적인 칭의를 나타낸다고 본다. D. Moo, *The Letter to the Romans*, 372 참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다. 미래형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는 양태적 미래형(modales Futur)으로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것임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31)</sup>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얻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고후 6:1-2).

#### 4. 결론

로마서 5:16-21에 사용된 δικαίωμα(16절, 18절), δικαιοσύνη(17절), δικαιοσύνη(18절), δίκαιοι καθίστημι(19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어져 오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로 기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인류에게 닥친 재앙을 나타내는 κατάκρημα의 반대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 대략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용어들 사이의 의미와 강조점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번역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 5:16-21에 사용된 각 δικαι-용어들의 의미와 번역 문제를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라는 단락 전체의 큰 담화 구조와 각 본문의 맥락과 본문 구조, 또한 단어의 어원과 조어법을 고려하여 다루어 보았다.

우선 로마서 5:16과 5:28에 두 번 사용되는 δικαίωμα의 다양한 용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Eth. Nic.* 1135a 9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설명과 어원이 되는 동사 δικαίω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δικαίωμα의 어원 δικαίω의 의미와 조어법에 따른 이 단어의 특징을 고려하면, δικαίωμα의 중심 의미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것’,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지위를 수여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마서 5:16과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μα를 번역한다면 각각 “의인의 지위를 수여함”, “의롭게 만드는 행위”와 같은 표현들이 어울릴 것이다. 다음으로 로마서 5:17과 5:21에 사용된 δικαιοσύνη는 주로 “의”로 번역이 되며, 바울서신에는 일반적으로 δικαίω의 축약형으로 칭의를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현재 통용되는 다양한 번역본들 역시 이러한 이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31) M.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I*, 357 이하.

위에서 살펴본 대로 *δικαιοσύνη*는 바울서신에서 항상 칭의의 의미만 가지지 않는다. 맥락에 따라서는 윤리적 함의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5:21의 경우 *ἀμαρτία*와 *δικαιοσύνη*의 대칭적 구조와 로마서 5:16-19에 사용된 다른 *δικαι*-용어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 단어를 단순히 법정적 판결로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로마서 5:18의 *δικαίωσις*는 로마서 5:16의 *δικαίωμα*와 마찬가지로 주로 “의롭다고 하심”, “무죄 선언”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 단어의 조어법과 맥락을 고려할 때, *δικαίωμα*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δικαίωμα*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δικαίωσις*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지만 본 연구는 그 반대가 오히려 본문의 맥락에 어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δικαίωσις*의 번역에 대해서는 “의인의 지위를 얻음”과 같이 신자가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를 더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19의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라는 표현은 *καθίστημι*의 의미를 고려할 때, 신자들이 단순히 법정적 판결, 곧 의롭다는 판결(혹은 무죄 선언)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지위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

종합하면 로마서 5:16-21에 사용된 *δικαι*-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자들이 경험하는 지위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것은 곧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 인정과 관련이 있으나 법정적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δικαι*-용어들의 중심 의미와 바울서신에서 *δικαι*-용어들이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때, 신자가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신자가 새롭게 선물로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며, 이러한 신자들의 새로운 삶은 영원한 생명을 담보한다(롬 5:21).

#### <주제어>(Keywords)

로마서 5장, 아담-그리스도 유형론, 칭의, 의, 은혜.

Romans 5, Adam-Christ Typology, Justification, Righteousness, Grace.

<참고문헌>(References)

- 권연경, “DIKAIWMA – “의롭다하심”인가 “의로운 행위”인가?”, 「신약논단」 18:3 (2011), 783-817.
- 김봉섭, “고린도전서 1:30의 해석에 대한 소고 – 구문 이해 및 바울서신의 관련구절 분석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6:4 (2019), 1081-1119.
- 김서준, “바울의 의에 대한 소망 - 종말론적 기대에서의 δικαι-용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 28:3 (2021), 645-686.
- Bird, M., *The Saving Righteousness of God: Studies on Paul*,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6.
- Breytenbach, C., *Versöhnung: Eine Studie zur paulinischen Soteriologie*,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Cranfield, C. E. B., *Romans I*, Edinburgh: T&T Clark, 1975.
- Debrunner, A., *Griechische Wortbildungslehre*,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917.
- Dunn, J. D. G.,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s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33, New York: NY Doubleday, 1993.
- Haacker, K.,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Jewett, R., *Romans: A commentary*, Edinburgh: Fortress, 2007.
- Käsemann, E., *An die Römer*, Handbuch zum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Siebeck, 1980.
- Kim, S.-J., “Righteous God Who Justifi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nstration of God’s Righteous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Sinners in Rom 3:24–26”, *The Expository Times* 134:8 (2023), 346-358.
- Kim, S.-J., *Gott ist es ja, der uns für gerecht erklärt: Eine Studie zu den verschiedenen Bedeutungen und Funktionen der δικαι-Termini im Römerbrief*, WMANT 16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3.
- Kirk, J. R. D., “Reconsidering Dikaiōma in Romans 5:16”, *JBL* 126:4 (2007), 787-792.
- Kraus, W. and Karrer, M., eds., *Septuaginta Deutsch*,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Lohse, E.,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 Moo, D.,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8.
- Olley, J. W., *“Righteousness” in the Septuagint of Isaiah: a Contextual Study*,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 Prothro, J. B., “The Strange Case of Δικαιόω in the Septuagint and Paul: The Oddity and Origins of Paul’s Talk of “Justification””, *ZNW* 107.1 (2016), 48-69.
- Schlier, H., *Der Römerbrief: Kommenta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87.
- Schreiner, T.,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I*,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Wolter, M., *Der Brief an die Römer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δικαι-Terms  
in Romans 5:16-21**

Seo-Jun Kim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s the meanings and translation challenges of the terms related to ‘righteousness’ used in Romans 5:16-21, particularly those with the δικαι- root. This section, known for the Adam-Christ typology, is not typically noted for its focus on terms of ‘righteousness’. However, in this passage, these terms are key in describing God’s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e overarching discourse structure of comparing Adam and Christ and the symmetry in each comparison makes discernment of the approximate meanings and emphases of each term: δικαίωμα, δικαιοσύνη, δικαίωσις, and δίκαιος not too difficult. However, it is far from eas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se terms, especially the less familiar ones beyond the often encountered δικαιοσύνη in Paul’s letters, and to translate them into Korean. This challenge is evident when examining their translations in the main Korean ver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the main translations currently in use render the various terms of ‘righteousness’ in Romans 5:16-21. It aims to propose appropriate translations for each term, considering their etymology, word formation, sentence structure, and context.